



스마트폰

2021년 스마트폰 시장 결산



2021년 스마트폰 시장은 중국 침체가 깊어진 가운데, 부품 공급난이 발목을 잡았지만, 연말로 가면서 완화됐다. 승자는 단연 Apple이었다. 코로나 이후 수요 양극화 추세와 더불어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독주했다. 삼성전자는 힘든 한해를 보냈지만, 7월부터 점유율이 상승세이고, 폴더블폰의 성과를 남겼다. 폴더블폰은 경쟁 본격화 및 생태계 활성화를 예고하고 있고, 약점인 내구성과 평가를 개선시킬 것이다.

>>> 중국 침체 장기화, 부품 공급난 완화

2021년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Sell-through)은 6.6% 증가한 13억 8,700만대였다. 지역별 성장률은 미국 14.2%, 인도 12.2%에 비해 중국 -2.1%로 중국 시장의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다. 중국은 내수 부진 이외에도 5G 교체 수요 둔화, 부품 공급난, Huawei 몰락 등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PMIC, 보급형 AP 등 부품 공급난이 발목을 잡았는데, 연말에는 확연히 완화됐다. 부품 구매력이 막강한 Apple의 공급망이 가장 빨리 정상화되고 있다.

>>> 승자는 Apple, 삼성 회복세, 폴더블폰 생태계 활성화 예고

업체별 2021년 점유율 변화폭을 보면, Xiaomi 2.8%p, Apple 2.6%p, Oppo 1.5%p, Vivo 1.4%p 순으로 상승한 반면, 삼성전자는 1.2%p 하락했고, Huawei는 8.3%p 하락한 2.8%를 기록해 존재감이 사라졌다.

단연 Apple이 승자였다. 아이폰 12 및 아이폰 13 시리즈가 연속으로 성공을 거두면서 코로나 이후 수요 양극화 추세와 더불어 프리미엄폰 시장에서 독주했다. 최근 3개월 연속 글로벌 1위이자 중국 내 1위를 차지했다. 12월 기준으로 판가 600달러 이상 시장에서 Apple의 점유율은 80%를 웃돌았다.

삼성전자는 어느 때보다 힘든 한해를 보냈다. 베트남과 인도 법인의 생산 차질을 겪었고, Flagship 모델의 판매 성과가 미흡한 가운데, 노트 시리즈 단종과 함께 라인업을 재정비했다. 프리미엄 시장에서는 Apple에게 밀리고 보급형 시장에서는 Xiaomi에게 위협받는 형국이었다. 다행스러운 점은 생산 차질 이슈를 딛고 7월부터 점유율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갤럭시 Z 3 시리즈 성공을 계기로 폴더블폰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Xiaomi는 상반기 약진한 이후에 하반기에는 부품난의 타격이 컸다. 유럽과 신흥시장에서 선전하면서 5월에 깜짝 글로벌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중저가 브랜드의 약진도 눈에 띈다. 중국 Honor와 인도 Realme가 대표적이다. Honor는 온라인 채널의 강점을 앞세워 중국 내 5강 구도를 형성했다. 미국에서는 Motorola가 LG전자 시장 철수에 따른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다.

폴더블폰 시장은 2021년 860만대에서 2022년에는 1,640만대로 91% 성장할 전망이다. 갤럭시 Z 3 시리즈는 출시 후 5개월간 555만대가 판매됐다.

최근 Oppo Find N, Honor Magic V, Huawei P50 등 폴더블폰 신모델이 공개돼 경쟁 본격화 및 생태계 활성화를 예고하고 있다. 현재는 가격과 휴대성에서 앞선 클램셸 타입이 우세지만, 장기적으로는 Book 타입 중심의 성장이 예상된다. 폴더블폰의 약점인 내구성을 강화하고, 평가를 낮추려는 노력이 성과를 내고 있다.

전기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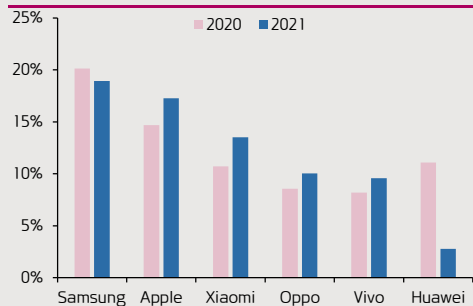
Analyst 김지산

02) 3787-4862 jisan@kiwoom.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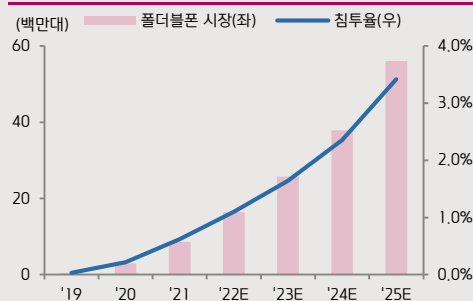
RA 김소정

02) 3787-4855 sojung.kim@kiwoom.com

주요 스마트폰 업체 점유율 변화(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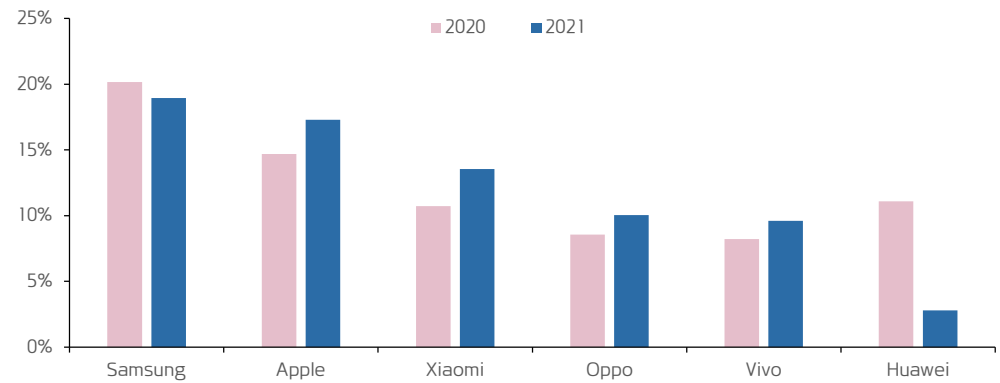
삼성전자 폴더블폰 판매량 추이



Compliance Noti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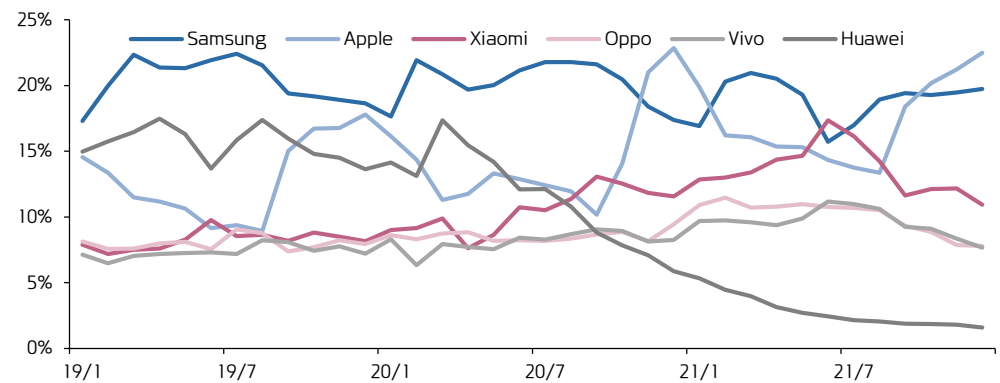
- 당사는 1월 28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주요 스마트폰 업체 점유율 변화(Yo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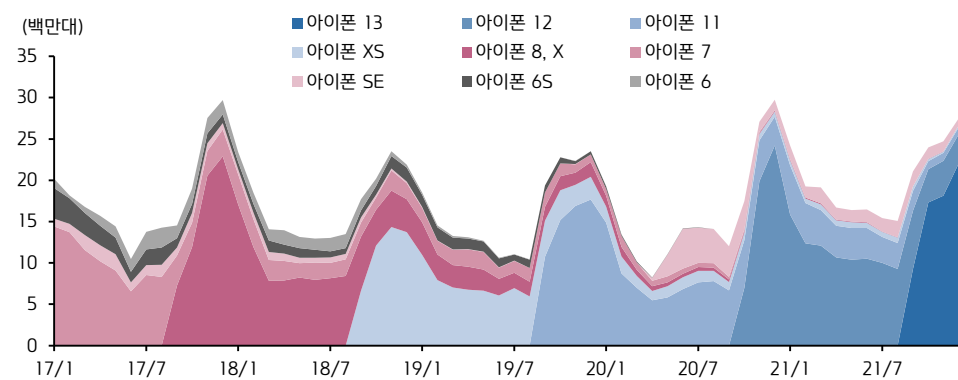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키움증권

주요 스마트폰 업체 시장 점유율 추이



자료: Counterpoint, 키움증권

아이폰 시리즈별 판매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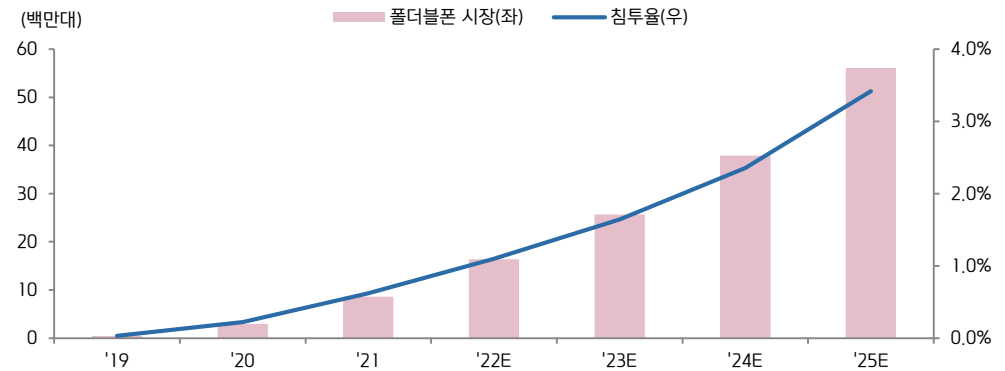
자료: Counterpoint, 키움증권

중국 브랜드 최신 폴더블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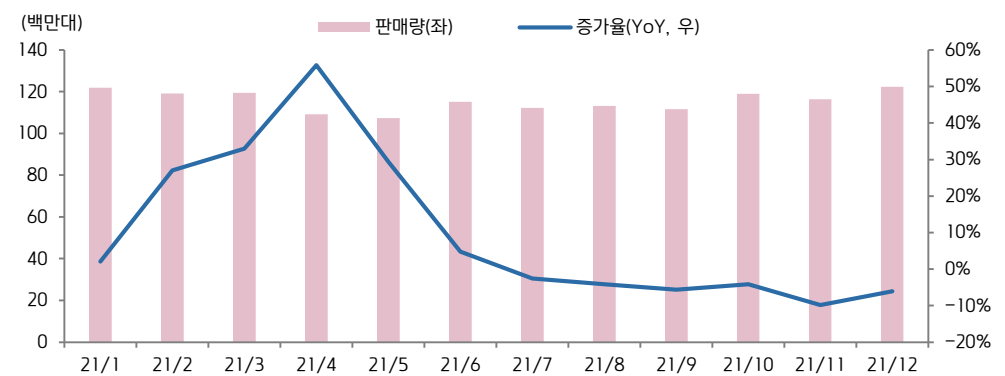
자료: GSM arena

폴더블폰 시장 전망



자료: Counterpoint, 키움증권

글로벌 월별 스마트폰 판매량 추이



자료: Counterpoint, 키움증권

투자 의견 및 적용 기준

기업	적용 기준(6개월)
Buy(매수)	시장대비 +20% 이상 주가 상승 예상
Outperform(시장수익률 상회)	시장대비 +10~+20% 주가 상승 예상
Marketperform(시장수익률)	시장대비 +10~-10% 주가 변동 예상
Underperform(시장수익률 하회)	시장대비 -10~-20% 주가 하락 예상
Sell(매도)	시장대비 -20% 이하 주가 하락 예상

업종	적용 기준(6개월)
Overweight (비중확대)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수익 예상
Neutral (중립)	시장대비 +10~-10% 변동 예상
Underweight (비중축소)	시장대비 -10% 이상 초과하락 예상

투자등급 비율 통계 (2021/01/01~2021/12/31)

매수	중립	매도
97.56%	2.44%	0.00%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